

10월 5일

10월 5일

##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동정

1905년에 폴란드 그위고비에츠에서 태어나 자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수녀회에서 그의 짧은 생애를 그리스도께 봉헌하였다. 하느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은 그는 자신의 신비 체험에 대한 증언을 영혼의 「일기」에 남기고, 온 세상에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간청하는 운동을 일으켰다. 1938년 크라쿠프에서 세상을 떠났다.

동정녀 공통: 한 동정녀, 1785, 또는 성녀 공통: 수도자, 1828.

### 마침 기도

하느님,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이 풍요로운 하느님의 자비를 널리 전하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로, 저희도 그를 본받아 인자하신 하느님께 오롯이 의지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 이 전례문은 주교회의 2020년 추계 정기 총회의 승인을 거쳐 사도좌 추인(2020년 11월 4일, 경신성사성, Prot. N. 520/20)을 받았습니다.